



## 미륵사와 서동설화

Mireuksa and the Fable of Seodong

---

|                    |                                                                                                                                                 |
|--------------------|-------------------------------------------------------------------------------------------------------------------------------------------------|
| 저자<br>(Authors)    | Lee Ne-Ogg                                                                                                                                      |
| 출처<br>(Source)     | <a href="#">역사학보 188</a> , 2005.12, 29-57(29 pages)<br><a href="#">The Korean Historical Review 188</a> , 2005.12, 29-57(29 pages)              |
| 발행처<br>(Publisher) | <a href="#">역사학회</a><br>THE KOREAN HISTORICAL ASSOCIATION                                                                                       |
| URL                |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48867">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48867</a> |
| APA Style          | (2005). 미륵사와 서동설화. 역사학보, 188, 29-57                                                                                                             |
| 이용정보<br>(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br>183.106.106.***<br>2021/08/15 13:47 (KST)                                                                                           |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미륵사와 서동설화

李 乃 沃\*

- I. 머리말
- II. 미륵사의 조영
- III. 미륵사와 법화신앙
- IV. 서동설화의 불교적 상징
- V. 서동설화를 통해 본 백제불교의 성격
- VI. 맺음말

## I. 머리말

백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은 매우 영세하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삼국유사』에 전하는 서동설화는 비교적 장편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관련 유적인 미륵사가 그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설화와 유적 상호 연관작업 또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미륵사와 서동설화의 배경이 된 당시 백제사회는 문화적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한 정확한 접근은 바로 백제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동설화에 대한 연구경향은 문학적, 역사학적 그리고 불교사상적 접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접근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문학적 접근은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역사적 접근은 설화라는 점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잣대로 재단하

---

\* 국립부여박물관 관장.

려고 했다. 불교사상적 접근 또한 단순히 미륵사상에 집중한 경향이 짙었다. 이런 문제점들은 어디까지나 설화의 표면적인 것들에 집착한 데서 비롯되었다.

서동설화는 백제후기 시대를 상징한다. 그것은 설화로서 하나의 상징체계이다. 거기에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물론 관념, 의식, 가치관, 사상, 역사, 미술 등이 녹아들어 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무의식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면에 침잠해 있는 상징들을 추출해낸다면, 미륵사와 서동설화, 그리고 백제, 더 나아가 삼국 가운데 가장 화려했던 문화를 이룬 나라의 역사, 문화, 예술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II. 미륵사의 조영

백제 무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 미륵사는 익산 금마면에 있다. 백제시대의 익산지방은 금마가 중심 지역이었고, 당시의 이름도 金馬漕였다.<sup>1)</sup> 금마저란 이름은 금마가 물가에 인접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근대의 대규모 치수사업의 결과로 물줄기의 커다란 흐름에 변화가 나타난 것이지, 본디 백제시대의 물길은 익산 내륙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sup>2)</sup> 금마가 백제시대에 중요시된 데에는 우선 지리적으로 이런 수로교통의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은 오늘날 호남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 있으며, 곧장 내려가 한반도 남쪽에 이르거나 또는 서해나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적 요충으로서의 이점에 비추어, 백제시대의 익산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익산은 낮은 산과 구릉의 평야지대이다. 김제평야나 옥구평야와 같은 호남평야가 익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익산의 황동제를 비롯하여 김제의 벽골제, 부

1) 『三國史記』卷36, 雜志5, 地理3.

2) 金三龍, 「地政學的인 측면에서 본 益山 - 水路交通路를 中心으로 -」 『益山の 先史와 古代文化』(익산, 2003), 155쪽.

안의 놀제와 같은 논농사를 위한 대형 저수지가 이미 백제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축조되었다. 이러한 평야와 수리시설이 고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는 점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백제의 수도에서 볼 때, 익산은 금강 이남으로 진출하는 관문이고, 교통망의 요충이자 국가 농업경제의 거점 지역이었다. 백제 제 2의 수도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백제 중앙정부로서는 어떤 정책적 고려를 취해야 할 중요한 지역이 금마를 중심으로 한 익산이다. 이런 점에서 금마에 미륵사와 같은 거대 가람이 들어설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금강 이남의 백제 영토 가운데 익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불교유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설명이 아직까지 없는 듯하다. 그럴수록 금마와 왕궁에 집중된 익산의 불교유적은 백제불교의 최전방 경계로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백제 불교를 지역적으로 구분한다면 익산은 매우 독특한 지역인 셈이다.

백제 불교의 중심지는 대체로 네 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서산·태안지역, 공주지역, 부여지역 그리고 익산지역이 그것이다. 서산·태안지역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마애불로 유명하다. 또 중국과 활발한 교류의 백제 측 거점 지역이었기에 불교문화 수용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선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주와 부여지역은 수도로서 불교문화 또한 중심지가 된 곳이다. 마지막으로 백제 영토 가운데 금강 이남은 백제불교 관계 기록이나 유적이 회소한데, 유독 익산이 불교문화의 중심지가 된 사실은 더욱 우리의 흥미를 끌게 한다. 이런 백제 불교문화의 지역적 흐름을 도식화한다면, 서산·태안 → 공주 → 부여 → 익산이 될 것이다. 대세론적으로 백제의 불교문화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 불교문화의 또 다른 정점은 익산의 불교문화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륵사가 위치해 있다.

미륵사지는 거대한 규모이다. 그래서 1966년 간단한 수습조사를 시작으로, 1974년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가, 1996년 30여 년에 걸쳐 공식적인 조사를

마무리하였다.<sup>3)</sup> 이 발굴조사에서 밝혀지거나 추정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가람배치는 3탑 3금당식이다.
- ② 하나의 院에 탑과 금당이 조성되고, 3院이 나란히 竝立한 배치이다.
- ③ 3원 병립의 배치는 『삼국유사』의 ‘殿塔廊廡各三所’라는 기록과 일치한다.
- ④ 동탑은 일부 남아 있는 서탑과 같이 석탑이며, 9층으로 추정된다.
- ⑤ 중앙 탑은 목탑이며 좌우 석탑보다 규모가 더 크고, 9층으로 추정된다.
- ⑥ 가람의 중심곽은 원래 못이었던 것을 산 흙으로 메워 조성하였다.
- ⑦ 출토유물로 미루어 7세기 전반 백제 무왕 대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서 미륵사의 전반적인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발굴조사에서 밝혀진 미륵사의 가람배치는 매우 독특하다. 3탑 3금당식의 가람 배치도 그렇고, 3院이 品字形이 아닌 竝立形이라는 사실도 그러하다. 다만, 금당에 모신 불상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미륵사라는 절 이름으로 미루어, 금당에 미륵불을 모셨다는 추정이 상식적일 것이다.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연기 설화에도 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솟아나온 것을 계기로 무왕이 절을 짓게 되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도 금당에는 미륵불을 모셨다고 추정할 수 있다.<sup>4)</sup> 『삼국유사』의 기록이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3금당의 존재도 이 미륵삼존을 봉안한다는 의미와 부합된다.

미륵사에 3금당의 존재도 특별한 것이지만, 3탑의 존재도 매우 특이하다. 게다가 중앙에 목탑을 두고 좌우에 석탑을 배치한 것도 불교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현재 남아있는 서쪽의 석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논의

3) 미륵사지 발굴조사 후에 드러난 유구와 유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한다.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彌勒寺 I』(1989).

國立文化財研究所, 『彌勒寺 II』(1996).

國立文化財研究所·全羅北道, 『彌勒寺址 石塔 解體調查報告書 I』(2003).

尹德香, 「彌勒寺址 유적의 발굴과 성과」 『益山の 先史와 古代文化』(익산, 2003).

4) “一日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三國遺事』卷2, 武王.

되고 있다. 그것은 중국에서 목탑 양식을 받아들인 후, 돌이라는 새로운 재료로 충실히 변안해 낸 점에서 한국 석탑의 시원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sup> 미륵사에 3기의 탑을 조성하면서 석탑과 목탑을 함께 배치한 것은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백제 탑과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이 미륵사 탑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과도기란 지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다. 목탑의 시대가 가고 석탑의 시대가 온 것이다. 미륵사 3기의 탑 가운데 중앙의 목탑은 당대 목탑 영조 기술의 최고 수준이었을 것이다. 동서 양 석탑의 하층기단은 12.5미터 내외의 방형인데 비해 목탑은 18.2미터 내외의 방형으로, 규모면에서 목탑이 석탑보다 훨씬 장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륵사 목탑과 같은 거대한 건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으로 미루어 백제문화가 난숙한 경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백제의 문화적 역량은 자연스럽게 주위에 전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염두에 두고 국가적 제일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황룡사 9층탑도 결국은 백제의 건축기술을 빌려야 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643년에 선덕왕이 황룡사 탑을 세우고자 하였을 때, 여러 신하들이 “工匠을 백

5) 高裕燮, 「朝鮮塔婆의 研究 其一」 『高裕燮全集』1(通文館, 1993), 53쪽.

고유섭은 백제계 석탑을 양식적 분류를 통해, 미륵사 석탑, 정림사 석탑 그리고 왕궁리 석탑의 순서로 편년하였다. 그의 치밀한 양식 분석으로 오늘날까지 이러한 주장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윤무병은 정림사지 발굴을 통해 정림사 석탑이 미륵사 탑에 선행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조심스럽게 제기하였다. 예컨대, 두 절터에서 출토된 單瓣蓮花文瓦當의 형식을 비교했을 때, 정림사지에서는 8엽 연화문인데 비해 미륵사지에서는 시대가 내려가는 6엽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 미륵사지 출토 와당의 판에 내부에 인동문 요소가 새로이 등장하고 子房의 직경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녹유를 씌운 와당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두 절터의 금당 기단을 비교하여 미륵사의 그것이 훨씬 후대의 소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를 들어, 정림사 석탑은 백제의 사비 천도 후 얼마 되지 않은 6세기 중엽에 건립되었고, 미륵사 석탑은 문헌 기록과 같이 7세기 초에 건립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尹武炳, 「扶餘定林寺址 發掘記」 『佛教美術』10(東國大學校博物館, 1991), 46-47쪽.

제에 청한 후에야 바야흐로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6)</sup> 신라는 삼국통일의 상징 탑을 건립하면서 국가적 자존심을 잡고 적국인 백제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결과는 양국 간의 어쩔 수 없는 문화적 수준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백제는 신라에 이렇게 수준 높은 목탑 건축문화를 수출하기 훨씬 이전부터 석재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실험에 돌입하고 있었다. 미륵사 석탑이 그것이다. 난숙한 경지에 이른 목탑문화에서 석탑이라는 새로운 돌과귀를 찾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륵사 중앙의 목탑은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이제 그 자리를 석탑에게 양보하는 교대 임무를 띠고 있다.

미륵사의 거대한 목탑을 세우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과 많은 인원 그리고 고난도의 건축기술이 필요하다. 석탑은 이런 목탑에 비해 한국 탑과의 역사상 더욱 발전된 양식이다. 따라서 석탑의 건립이 목탑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채석하는 데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채취한 석재를 움직이는 데에도 목재보다 무겁기 때문에 힘든 일이다. 당시에 석재를 어디에서 채취하였을까 하는 문제도 관심사이다. 미륵사 뒤의 용화산(오늘날의 이름은 미륵산)에 화강암들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가까운 곳에서 채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미륵사 석탑과 용화산 중턱의 석질을 분석한 결과 다른 어느 곳 석질보다 유사함이 증명되었다.<sup>7)</sup>

6) “善德王議於群臣 群臣曰 請工匠於百濟 然後方可 乃以寶帛請於百濟 匠名阿非知 受命而來 經營木石” 『三國遺事』卷3, 皇龍寺九層塔.

7) 조규성·박재문, 「익산 미륵사지 석탑에 사용된 화강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 『科學教育論叢』27(전주, 全北大學校 科學教育研究所, 2002), 33~45쪽.

이 논문은 전북 여러 지역에서 암석을 채취하여 미륵사 석탑의 석질과 비교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미륵사 뒷산인 용화산 중턱의 석질과 가장 유사함이 밝혀졌다. 미륵사 석탑의 화강암 중 이산화규소의 함량이 73.91%인데 비해 이와 가장 유사한 함량을 보인 석질이 용화산 중턱의 화강암으로 74.21%였다. 그리고 화강암에 포함된 스트론튬, 루비듐, 세슘, 지르코늄, 리튬 등의 미량원소 함량도 용화산 중턱의 것과 유사하게 측정되어서, 미륵사 석탑에 사용된 석재는 그 뒷산에서 채취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미륵사 창건설화를 전하는 『삼국유사』 무왕 조에, 용화산 밑 못에서 미륵삼존

비록 미륵사 뒷산 중턱에서 석재를 채취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운반하여 가공하고 다듬는 데에도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륵사 석탑과 같이 거의 30여 미터에 이르는 규모까지 쌓아 올리는 작업도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이어 붙일 수 없는 석재의 특성상 하나하나 조립하여 무너지지 않게 높이 쌓아야 하는 데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미륵사 석탑의 석재 결구수법은 크기를 크게 하지 않고 돌을 두 개 이상으로 나누고도 한 부재처럼 맞추어서 썼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맞추는 면이 서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약간 거칠면서도 일매진 돌을 엮어서 끄떡거리거나 비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올라가게 하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sup>8)</sup>

미륵사 석탑을 이와 같이 결구했다는 사실은 백제의 석조기술이 고도로 발달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된다. 미륵사 석탑은 분명 목탑에서 석탑양식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의 草創의 단계에 있다. 백제에서 미륵사 목탑을 세운 한참 후에 신라에서는 백제의 목탑 건축기술을 수입하여 황룡사 목탑을 세웠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당시 미륵사에 석탑을 세운 것은 대단한 신기술임에 틀림없다. 이런 상황에서 백제가 거대한 석탑을 쌓아올릴 계획을 구상하였고, 그것도 한기가 아닌 두 기의 석탑을 영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백제문화가 전반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백제의 석조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미륵사 석탑을 무리 없이 쌓아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석탑은 목탑과는 달리 썩거나 화재 피해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얼마나 결구를 견고하게 짜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그러나 석탑

---

이 출현하자 그곳에 큰 절을 짓기로 하였을 때, 지명법사가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웠다는 설화의 내용도 뒷산의 석재를 사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8) 김형래·김경표, 「益山 彌勒寺 西塔에 나타난 木造塔形式」 『建設技術研究所 論文集』 19-2(청주, 충북대학교 건설기술연구소, 2002), 99쪽.

으로서 시원적인 존재이자 거대한 규모의 미륵사 석탑은 자신의 몸체를 오래 지탱하지 못한 듯하다. 미륵사 동탑은 이미 오래 전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서탑은 6층만을 간신히 유지한 채 근근이 버텨왔다. 그것은 두 탑이 지나는 엄청난 자체 무게와 하중 때문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이지만, 6층까지 남아 있는 서탑의 총 무게는 무려 약 1,500톤으로 추정되며, 기단부에 작용하는 탑신부 총 하중은 최대 약 1,074톤에 이른다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어마어마한 무게와 하중을 가진 미륵사 석탑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직접적인 붕괴원인은 무게와 하중 때문에 기초의 부등침하에 의한 변형이 일어났거나 또는 지진력에 의해 발생한 수평전단력의 가능성이 큰데, 어떤 이유로 붕괴가 유발되었던지 간에 석탑에 내재된 구조적 불안정성이 그 근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sup>10)</sup>

물론 이런 구조 진단이 미륵사 석탑의 붕괴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국 건축사의 차원에서 그 붕괴를 본다면, 석탑으로서 초창기 이면서 지나치게 큰 규모로 설계되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조 架構技法으로 거대한 석조건축을 유지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평부재들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다.<sup>11)</sup> 결국 이것은 석탑으로서 완성된 양식이나 완벽한 가구법에 의해 영조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기술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백제에서는 당시에 이런 거대한 규모와 새로운 창작으로 미륵사 탑을 건립했어야 하는 어떤 시대적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마 대단한 열정이나 절박한 욕구 그리고 치열한 정신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그 무엇이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백제역사에 있어서 최고 관심사 중의 하나일 것이다.

9) 오강호·김경진, 「익산미륵사지석탑의 붕괴원인 분석」 『한국구조물진단학회지』 8-3(한국구조물진단학회, 2004), 68쪽.

10) 오강호·김경진, 같은 논문, 72쪽.

11) 김형래·김경표, 앞 논문, 12쪽.

### III. 미륵사와 법화신앙

미륵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절은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그와 같이 거대한 초호화 가람을 창건했다는 데에서 그 신앙의 정도를 유추해볼 수 있다. 신라의 眞慈가 미륵선화를 친견하기 위해 백제의 공주로 찾아온 『삼국유사』의 기록에서도 백제가 당시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부여 군수리 출토 금동미륵보살입상이나 서산마애삼존불 가운데 미륵반가사유상, 그리고 부여 부소산 출토 납석제 미륵반가사유상 등의 많은 미륵불보살 등의 유물들을 통해서도 당시 백제에 미륵신앙이 광범위하게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미륵사 창건연기를 전하는 서동설화에 미륵삼존이 출현한 점에 근거한다면, 그 배경에는 미륵삼부경에 근거한 용화 이상세계 구현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륵사에 남아 있는 유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성격이 잠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탑의 존재의미이다. 서동설화에는 못에서 출현한 미륵삼존의 상을 모방해서 불상을 만들어 금당에 모셨다고 했다. 서동설화의 서사 내용을 본다면 미륵사에서는 당연히 금당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구로 본다면 거대한 목탑 한 기와 석탑 두 기가 더 부각되어 강조되고 있다. 이 탑들은 미륵삼존의 출현을 기념하여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석가의 진신사리를 모시는 장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미륵사의 탑은 造塔으로 공덕을 쌓는 것을 의미하며, 조탑신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탑신앙은 법화경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다.

미륵보살은 법화경과도 관련이 깊다. 법화경에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보살도 미륵이다. 또 법화경의 從地踊出品은 석가모니불과 미륵보살의 대화로 꾸며져 있다. 이런 점이 그 관련성을 말해준다. 그런데 미륵사 탑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법화경의 조탑신앙이다. 법화경 곳곳에는 조탑의 공덕이 실려져

있다. 법화경이 설해지는 지상의 어느 곳이든 탑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부처의 사리를 성대히 공양하고 그 사리를 유포시켜 수천의 탑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며, 또 여래의 탑에 경례하거나 공양하거나 참배하는 사람은 모두 위없는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그리고 법화경이 설해지는 지상의 어떤 장소에서건 마땅히 大塔이 세워져야 하겠지만, 반드시 여래의 유골을 모실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이다.<sup>13)</sup> 법화경에서는 이미 석가모니의 사리를 안치하는 유골묘로서의 탑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 탑 자체에 부처의 全身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사리를 모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석가모니 불 멸도 후 教主로서의 초역사적 불타관의 성립을 말하며, 또한 변성하던 탑신앙의 유행을 받아들이면서 大塔의 건립을 추구하는 것이다.<sup>14)</sup> 탑의 개념이 변화, 진전되어 가고 있음을 말한다.

백제후기에는 다양한 불교신앙이 유행하였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주류는 법화신앙이 아닌가 한다.<sup>15)</sup> 玄光이 중국에 건너가 法華三昧를 증득하고 귀국하여 고향인 공주에서 실천적인 법화신앙을 펼친 것이나, 發正이 중국으로부터 귀국하면서 화엄경보다 법화경이 殊勝하다는 故事를 전한 것, 그리고 武王 대에 惠現의 법화경 讀誦에 얽힌 異跡 등을 통해서 볼 때, 백제에서 법화신앙이 매우 폭 넓고 뿌리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백제에 이런 법화경이 크게 유행하였다는 것은 그것이 신앙과 미술에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미륵사의 경우도 그렇다. 미륵사라는 사원공간 전체에서 탑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미륵사를 조성하고 거기에 大塔을 세운

12) 『妙法蓮華經』「藥王菩薩本事品」, 「如來神力品」, 「法師品」.

13) 『妙法蓮華經』「法師品」.

14) 金英吉, 「法華經의 塔說에 관한 研究」 『韓國佛敎學』18(韓國佛敎學會, 1993), 62쪽.

15) 백제의 법화신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安啓賢, 「百濟佛敎에 關한 諸問題」 『百濟研究』8(대전,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77).

金煥泰, 「法華信仰의 傳來와 그 展開 - 三國·新羅時代 -」 『韓國佛敎學』3(韓國佛敎學會, 1997).

緣起가 못에서 미륵삼존이 용출한 데에서 비롯된 점으로 볼 때, 그곳에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지하에서 불교적 상징물이 솟아오른 것은 보편적이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고구려 아육왕탑의 연기설화나, 중국 최초의 탑인 낙양 백마사의 齊雲塔 연기설화 모두 지하에서 탑이 솟아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범화경의 탑설을 정리하고 있는 見寶塔品의 서두도 지하에서 탑이 용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때 부처님 앞의 한가운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부터 높이가 5백 유순에 둘레도 그 정도 되는 칠보탑이 나타나 공중으로 올라가 한가운데서 멈추었다”라고 한 것이다.

범화경에서 탑의 용출은 서동설화에서 미륵삼존이 솟아오른 것과 같은 맥락의 수사적 표현이다. 더욱이 미륵이 범화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나 미륵사의 거대한 탑의 건립의 사상적 배경이 범화경의 조탑공양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당시 백제에 범화경이 광범위하게 유행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륵사 탑과 같은 大塔을 건립한 데에는 범화경에 나타난 탑설의 사상적 배경을 배제하고 논의할 수는 없다. 미륵사가 단순히 미륵사상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당시 신앙의 주류를 이루었던 범화신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음은 서동설화를 분석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 IV. 서동설화의 불교적 상징

『삼국유사』 무왕 조는 완전한 하나의 설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인다. 주인공 무왕이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미륵사를 창건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서 이 설화의 전체를 주어와 술어로 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왕이 미륵사를 창건했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설화 가운데 바로 무왕의 미륵사 창건 외에 어떤 것도 역사적 실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 설화 가운데에는 무왕과 미륵사에 대한 어떤 상징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무왕 대

는 백제문화가 융성의 극치를 이룬 시기이자 한국 고대문화의 중심축을 형성한 시기였다.

이른바 서동설화로 불리는 이 무왕 조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의 일관된 편찬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서동설화가 수록된 『삼국유사』 紀異篇은 神異한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본정신이다. 따라서 고대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불교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데 절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sup>16)</sup> 한 마디로 『삼국유사』는 고대인의 불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불교 사상을 내세워도 경전을 풀이하거나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설화로 표현했고,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합리적인 사실에 근거한 역사가 아니라 神異한 것을 제시하였다.<sup>17)</sup> 따라서 설화에 녹아 있는 고대인의 관념과 사상 그리고 역사를 추출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화로 포장된 표피를 걷어내면 역사라는 내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걷어내면 핵심에 당시의 신앙과 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백제인들의 정신세계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삼국유사』 무왕 조의 기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목별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18)</sup>

16) 金杜珍, 「三國遺事 所載 說話의 史料的 가치」 『口碑文學研究』13(口碑文學研究會, 2001), 197, 206~207쪽.

17)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연구의 문제와 방향」 『三國遺事의 新研究』 (신라문화선양회, 1991), 182쪽.

18) “武王 - 古本作武康王 非也 百濟無武康 -

第三十武王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 小名薯童 器量難測 常掘薯蕷 賣爲活業 國人因以爲名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善花 - 一作善化 - 美艷無雙 剃髮來京師 以薯蕷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 乃作謠 誘群童而唱之云 善花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薯童房乙 夜矣卯乙抱遣去如 童謠滿京 達於宮禁 百官極諫 竄流公主於遠方 將行 王后以純金一斗贈行 公主將至竄所 薯童出拜途中 將欲侍衛而行 公主雖不識其從來 偶爾信悅 因此隨行 潛通焉 然後知薯童名 乃信童謠之驗 同至百濟 出王后所贈金 將謀計活 薯童大笑曰 此何物也 主曰 此是黃金 可致百年之富 薯童曰 吾自小掘薯之地 委積如泥土 主聞大驚曰 此是天下至寶 君今知金之所在 則此寶輸送父母宮殿何如 薯童曰可 於是聚金積如丘陵 詣龍華山師子寺知命法師所 問輸金之計 師曰 吾以神力可輸 將金來矣 主作書

- ① 백제 도성 남쪽 못가에 사는 과부가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아들을 낳는다.
- ② 그 아이는 마를 캐서 팔아 살았기 때문에 나라 사람들이 서동이라 불렀다.
- ③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선화공주가 미인이라는 소문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마를 주면서 이른바 서동요를 부르게 한다.
- ④ 의심을 받은 선화공주는 귀양을 가게 되고, 이 때 왕비가 금 한 말을 준다.
- ⑤ 서동은 귀양길의 선화공주에게 접근하여 관계를 맺은 후 백제로 함께 간다.
- ⑥ 선화공주는 생계를 위해 금을 내놓는데, 서동은 금을 몰라본다.
- ⑦ 선화공주는 서동이 마를 캐던 곳에 쌓아놓은 금을 신라로 보내자고 한다.
- ⑧ 금 수송을 사자산 지명법사에게 의뢰하니, 신통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보낸다.
- ⑨ 진평왕은 더욱 서동을 신뢰하니, 이로써 서동은 왕위에 올라 무왕이 된다.
- ⑩ 무왕과 선화공주는 지명법사를 찾아가던 중 용화산 밑의 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자, 선화공주의 청원으로 그 곳에 절을 짓기로 한다.
- ⑪ 지명법사와 진평왕이 절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미륵사라 하였다.

이 설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분명 백제 무왕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라라는 磁場이 끌어당기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선 많은 여인 중에서 신라의 선화공주가 미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서동이 캔 금을 백제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방법을 통해 신라로 굳이 보내는가 하면, 진평왕이 항상 서신을 보내 안부를 묻자 그로 인해 서동이 인심을 얻어 백제 왕위에 오르고, 미륵사를 짓는데 진평왕이 백공을 보내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또 서동이 백제인인데에도 불구하고 신라인의 입장에서 표현한 부분들도 그렇다. 예컨대, 서동이 선화공주를 꼬이기 위해 백제에서 신라 서울로 갔는데, 갔다는 표현 대신 ‘來京師’라 하여 왔다고 한 점이다. ‘來’란 분명히 저쪽에서 이쪽으로는 움직임을 말한 것이다. 또 서동이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 돌아온 것도 ‘同至百濟’라 하였는데, ‘至’란 정확히 말하여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이리 점에서 백제

---

并金置於師子前 師以神力 一夜輸置新羅宮中 眞平王異其神變 尊敬尤甚 嘗馳書問安否 薯童由此得人心 卽王位 一日 王與夫人 欲幸師子寺 至龍華山下大池邊 彌勒三尊出現池中 留駕致敬 夫人謂王曰 須創大伽藍於此地 固所願也 王許之 詣知命所 問填池事 以神力一夜頽山填池爲平地 乃法像彌勒三尊 殿塔廊廡各三所創之 額曰彌勒寺 - 國史云 王興寺 - 眞平王遣百工助之 至今存其寺 - 三國史云 是法王之子 而此傳之獨女之子 未詳 - 『三國遺事』卷2, 武王.

무왕의 설화가 무의식적으로 신라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백제 설화였던 것이 삼국통일 후에 신라의 입장이 많이 첨가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백제와 신라 피아간의 구분 의식이 희박함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설화의 원형을 찾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서동설화가 문자화된 것은 일연이 『삼국유사』에 채록하기까지 수백 년이 흐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원형을 복원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설화를 설화로 이해해야지, 그 부분들을 떼어내 역사적 사실로 해석한다면 위험한 일이다. 서동설화 가운데에는 백제와 신라가 혼인을 맺고 서로 돕는 등 매우 친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에는 치열한 전투가 쉴 새 없이 진행되면서 원수 지간이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신라와 백제 사이에 벌어진 전투만 해도 진평왕 조에는 9회, 무왕 조에는 13회가 보일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동설화의 주인공은 무왕이 아니라 무령왕이라는 주장이 있다.<sup>19)</sup> 그 논거는 무왕 조 제목에 붙은 일연의 細註인데, “古本에는 武康이라 했으나 잘못이다. 백제에 무강왕은 없다”가 그것이다. 무강의 ‘康’과 무령의 ‘寧’은 서로 넘나들면서 쓰이는 글자이고, 무령왕 직전의 왕인 동성왕 대에 백제와 신라의 혼인 기사가 있다는 점을 논증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것은 설화의 부분을 떼어내서 역사학의 잣대로 분석한 예이다. 설화를 설화로 보고 거기에 담긴 상징을 읽어내야 한 것을 소홀히 한 셈이다. 만약 서동설화를 역사학적 사료로 파악하고 접근한다면 많은 부분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서동설화가 설화이기 때문에 설화로만 이해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하여 서동설화를 하나의 일관된 서사구조로 보지 않고 거기에 몇 개의 민간설화가 복합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서동의 탄생에서부터 연애담, 왕위에 오름 그리고 미륵사 창건 등에 단층이 있다고 보고, 여러 다른 설화의 복합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sup>20)</sup> 특히 서동이 왕위에 등극하기까지와 그 이후 미륵사 창건은

19) 李丙燾, 「薯童 說話에 對한 新考察」 『歷史學報』1(歷史學會, 1952).

단층이 심하다. 그래서 별개의 설화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동설화 전체 흐름 속에는 나름대로의 내밀한 전제와 복선들이 깔려 있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서동이 신라 서울의 아이들을 꼬이기 위해 마를 나누어 주는데, 이런 결과는 어릴 때부터 마를 캐어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전제로부터 가능한 것이었다. 또 어릴 때부터 마를 캐다는 복선이 깔린 다음 그로 인해 황금을 발견하게 된다. 또 왕비가 귀양 가는 선화공주에게 노자로 금을 주는 것도 결국은 후에 서동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금을 발견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설화의 전반부와 미륵사 창건의 관계도 얼핏 보아 서로 단층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도 나름의 연결고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못에서 출현한 용과 과부가 관계하여 서동이 출생한 점, 그리고 그 서동이 용화산 밑을 지날 때 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하여 미륵사를 지은 점도 서로 조응된다. 둘 모두 못에서 출현한 것이 새로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되는 두 서사구조를 서로 관련이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동설화는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설화이기 때문에 신이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그 시대정신인 불교적 상징이 담겨 있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얻고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미륵사를 창건하는 것으로 『삼국유사』 무왕 조는 그 설화의 막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사 창건 이외의 이야기는 보조적인 소재에 불과하다. 그

20) 예컨대, 서동설화에는 英雄傳說, 靈物交合說話, 夜來者說話, 奇男妙計娶女說話, 善者得寶橫財說話, 庶童出世說話, 道僧神通說話 등이 층층이 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예를 들 수 있으며, 특히 金學成은 서동설화가 민중설화로 형성되었다가 귀족설화로 재편성되고 마지막으로 사찰연기설화로 다시 재편성되었다고 했다.

宋在周, 「薯童謠의 形成年代에 對하여」 『池憲英先生紀念論叢』(湖西文化社, 1971).

史在東, 「薯童說話研究」 앞 책.

金學成, 「三國遺事 所載 說話의 形成 및 變異過程 試考」 『冠岳語文研究』2(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7).

모든 것들이 미륵사 창건이라는 주제를 위해 정교하게 설정된 보조장치인 셈이다.

무왕의 어머니는 과부로 등장한다. 이 여인은 과부로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다. 이러한 묘사에서 풍기는 여인의 이미지는 외롭고 빈한 하며 천하다. 사회와 운명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이다. 그런데 그 못에서 출현한 용과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은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보잘 것 없는 이 여인이 용으로부터 이런 훌륭한 아들을 얻은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은총이었다. 여인의 미친함에 비해 그 아들이 이렇게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용의 정기를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렇다면 이 용은 어떤 성격일까. 용의 성격은 시대와 국가마다 다르고 또 각 시점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설화 후반 부 용화산 밑 못에서 출현하는 미륵삼존과 수미쌍관을 이룬다. 서동설화가 전체로서 내밀한 복선 요소들이 깔려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용은 불교적인 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미륵불과 관련된 용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용은八部衆 가운데 하나로서 불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륵불 관련 경전에 의하면, 용은 인간들과 함께 미륵불의 명호를 듣고 도솔천에 왕생할 수 있는 모든 대중 가운데 한 부류를 차지한다.<sup>21)</sup> 또 미륵불국토의 어느 용은 연못 근처에 있는 궁전에 살며 한밤중에 사람으로 변하여 향수를 땅에 뿌리는 일을 한다.<sup>22)</sup> 서동이 용의 아들이라는 전제는, 결국 미륵사라는 거대한 가람을 지어 불법을 흥포하는 대역사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善花를 피기 위해 머리를 쥐고 신라의 서울

21) “佛滅度後 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摩睺羅伽等 是諸大衆 若有得聞彌勒菩薩摩訶薩名者 聞已歡喜恭敬禮拜 此人命終如彈指頃即得往生 如前無異”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正藏 第14冊, No. 452. p420a29.

22) “有大龍王名多羅尸棄 福德威力皆悉具足 其池近城龍王宮殿 如七寶樓顯現于外 常於夜半化作人像 以吉祥瓶盛香色水” 『佛說彌勒大成佛經』 大正藏 第14冊, No. 456. p429b10-12.

로 들어간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細註에 “善花 - 혹은 善化라고도 쓴다 -”는 기록이 있다. 선화공주는 왕비가 되어 용화산 아래 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하자 왕이 된 서동에게 “이 곳에 큰 절을 세워야겠습니다. 진실로 저의 소원입니다”라고 한다. 이로써 본다면 신라의 선화공주는 미륵사 창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이렇게 미륵신앙에 얽힌 선화공주는 흡이 비슷하다는 면에서 신라의 彌勒仙花와 연관을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sup>23)</sup> 그리고 미륵선화는 그 명칭에서 미륵인 불교신앙과 선화인 토착신앙을 아울러 갖춘 巫佛 융합신앙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잘 알려진 眞慈와 彌勒仙花의 설화를 참고해 보기로 한다.<sup>25)</sup> 신라 진평왕 직전의 진지왕 대(576~579) 흥륜사 승려인 진지는 미륵불상 앞에 지성으로 발원하였다. 그랬더니 꿈에 미륵불이 나타나 진자에게 이르기를 백제 땅 공주의 水源寺에 가면 彌勒仙花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 절에 간 진지는 과연 미륵선화를 만난다. 이 설화는 우선 신라사회에서 미륵선화에 대한 간절한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당시 백제의 공주지역이 미륵신앙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런 설화가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이런 시대적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선화공주는 미륵선화의 또 다른 상징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화공주가 진평왕의 셋째 공주로 설정된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서동설화의 불교적 상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만약 선화가 진평왕의 공주라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 때,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전쟁으로 원수지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설화의 내용과 같이 서동과 진평왕이 우호관계를 맺고 심지

23) 金杜珍, 「百濟의 彌勒信仰과 戒律」 『百濟佛敎의 研究』(대전, 忠南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4), 50쪽.

24) 金杜珍, 「新羅 中古時代의 彌勒信仰」 『韓國學論叢』9(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7), 20쪽.

25) 『三國遺事』卷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26) 金杜珍, 앞 논문, 48쪽.

어 미륵사 건설에 지원까지 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설화를 부인하거나 또는 다른 시대로 비정하기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공주의 父王을 진평왕으로 설정해야 했던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범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이후 진흥왕, 진지왕 대까지 신라 왕실은 轉輪聖王의 관념을 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평왕 대에 이르러서 왕실은 釋迦族의 이름을 따 붙이면서 이른바 釋宗意識을 드러내고 있다.<sup>27)</sup> 진평왕의 이름은 白淨으로 석가의 아버지 이름이며, 왕비 김씨는 摩耶夫人으로 석가의 어머니 이름이다. 진평왕의 두 동생은 백반과 국반인데, 이것은 모두 석가의 삼촌 이름들이다. 만약 진평왕에게서 왕자가 태어났다면 그는 석가로 불리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평왕계가 석가족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따와서 사용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석종의식을 가진 데서 나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다면, 석가는 과거불이고, 미륵은 석가의 뒤를 이어 출현할 미래불이다. 그렇다면 진평왕 부부가 석가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가진 것을 생각했을 때, 만약 진평왕이 딸을 두었다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 답은 거의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서동설화에서 선화공주는 미륵선화의 상징적 존재이다. 그리고 선화공주가 진평왕 부부의 딸로 설정된 것도 석가의 부모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을 정도로 그들의 열렬한 불교적 신앙을 서동설화에 반영한 것이다. 서동설화의 본질은 불교적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의 원수관계는 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현실적 차원은 더 높은 차원의 불교적 상징으로 대체·승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서동이 선화공주와 혼인함으로써, 서동은 진평왕 부부의 자식이 되었다. 진평왕 부부가 석가의 부모인 백정과 마야부인인 것을 생각한다면, 서동도 이제 석가족에 편입되었음을 상징한다.

서동은 선화공주가 이름답고 곱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쥐고 신라

27) 진평왕 대의 석종의식에 대해서는, 金杜珍, 「新羅 眞平王代의 釋迦佛信仰」 『韓國學叢』10(國民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7), 33쪽을 인용했다.

서울로 들어간다. 美艷은 여성의 최고 덕목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성들은 치열하게 경쟁한다. 서동도 선화공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녀가 있는 신라 서울로 가야 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머리를 깎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출가를 의미한다. 선화공주를 만나기 위해 서동이 머리를 깎은 것은 求道の 불교적 상징이 아닐까 한다. 예술이나 여성에 있어서의 美는 종교에 있어서의 聖과 같다. 『삼국유사』에는 그러한 구도의 상징을 나타내는 예들이 많기 때문이다.

眞慈는 미륵보살이 화신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빈다. 그 정성이 지극하여 마침내 꿈에 계시를 받고 백제 땅 공주에 가서 미륵보살의 화신을 만난다.<sup>28)</sup> 그 가는 길이 열흘 동안 소요되었는데, 가는 걸음마다 한 번씩 절하면서 나아갔다고 한다. 또 慈藏은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노력했으나,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 메고 온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쓸쓸하게 죽어간다.<sup>29)</sup> 義湘은 낙산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반면, 元曉는 관음보살이 길가의 여인으로 나타난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그 진신을 친견하지 못하고 만다.<sup>30)</sup> 이밖에도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관음보살 친견이나, 경홍의 문수보살 친견 그리고 월명사의 미륵보살 친견 등 많은 예가 전한다. 서동설화에서 서동은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머리를 깎고, 어린아이들을 동원하여 서동요를 부르게 한다. 또 궁중에서 쫓겨나 귀양 가는 선화공주에게 접근하여 마음을 사는 등,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서동설화의 설정은 『삼국유사』에 미륵, 문수,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도자들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다.

28) 『三國遺事』卷3, 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

29) 『三國遺事』卷4, 慈藏定律.

30) 『三國遺事』卷3,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 V. 서동설화를 통해 본 백제불교의 성격

서동은 마를 캐서 생계를 꾸리는 하찮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재기와 도량이 커서 그 능력과 노력으로 엄청난 신분 격차를 극복하면서 아름답고 고운 신라의 선화공주를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룩하였다. 그만큼 서동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것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루었다. 서동의 인간적 위대성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 서동설화를 영웅담으로 성격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서동이 선화공주와 혼인한 다음의 일화들을 보면 영웅으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서동은 선화공주가 보인 금의 가치조차 전혀 몰라 본다. 또 금을 신라에 보내지는 제의도 선화공주의 주장이고, 금을 수송하는 데에도 서동의 능력이 아닌 지명법사의神通력이 발휘된다. 서동이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는 것도 진평왕이 늘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물었기 때문이다. 미륵사를 짓는 것도 선화공주의 발원에 의해서며, 건축공사 또한 지명법사의神通력과 진평왕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동은 이제 탁월하기는커녕 거의 역할이 없다. 금의 가치를 몰라 볼 정도로 바보형에 가깝다.<sup>31)</sup>

서동은 선화공주와 혼인하기 이전까지 능력이 뛰어난 영웅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거의 바보형의 인간으로 역할이 전락한다. 흔히 영웅설화라고 하면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한 인간이 온갖 고난을 헤쳐 나아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서 고귀한 인간 영웅의 숭고함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는 비장함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동설화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다. 선화공주를 만난 후 서동의 역할은 모두 수동적이 된다. 그 대신 선화공주가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아간다. 선화공주는 모략을 당했으나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서동을 포용하고 용서한다. 그리고 서동이 금의 존재가치를 모를 때

31) 金學成, 앞 논문, 199쪽.

그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진평왕에게 금을 보내도록 해서 마침내 서동이 왕위에 오르도록 내조한다. 용화산 아래 못에서 미륵삼존이 출현했을 때에도 선화공주가 발원하여 결국 미륵사를 세운다. 지금까지 서동설화를 서동의 입장에서 보아 왔지만, 이제 선화공주를 주인공으로 삼아 풀이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선화공주가 미륵선화를 상징한다는 것을 관련시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서동은 비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란 한계가 있다. 서동이 미륵선화를 상징하는 선화공주를 만난 다음부터는 급격히 자신의 역할이 축소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화공주에게 의탁하고 따른다. 마침내는 미륵사와 같은 거대 가람을 지어 불법의 흥포와 신앙하는 커다란 공덕을 쌓기에 이른다. 이런 설화구조는 서동이 불보살에 귀의하고, 그 불보살의 인도를 받아 열렬한 신앙으로 마침내 큰 공덕을 이룬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화공주와 함께 서동을 돕는 지명법사의 의미도 되짚어 볼 필요가 생긴다.

知命法師은 신통한 도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쌓아놓은 금을 신통한 도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보내기도 하고, 용화산 밑의 못을 하룻밤 사이에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 미륵사를 짓게 한다. 그렇다면 지명법사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지명법사의 '法師'라는 명칭에 주목하고자 한다. 법사라는 명칭은 여러 경전에서 무수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또 그 역할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法華經이다. 법화경에는法師品과法師功德品の 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을 정도이다. 법사는 불법을 설하고 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불법의 흥포가 강조되면서 이 법사의 위치가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사를 여래와 동일한 존재로서, 이미 무상정등각을 성취했으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임시로 모습을 드러낸 불보살로 간주된다.<sup>32)</sup>

32) 車次錫, 「法華經의 法師에 대한 考察」 『韓國佛敎學』18(韓國佛敎學會, 1993), 314쪽.

법화경뿐만 아니라 미륵경전에도 법사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는 예가 있다. 「미륵하

법화경 신앙은 백제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그리고 법화경의 중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법사이다. 서동설화에서 신통력을 가진 지명이라는 법사가 서동을 왕위에 오르도록 돕고 또 미륵사를 창건하는 데 기여한다. 이로 볼 때 서동설화에 나오는 지명법사가 상징하는 바는, 법화경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바세계에 모습을 드러낸 불보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서동은 역량이 뛰어나고, 선화공주를 취한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이지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에 비해 금을 하룻밤에 신라로 수송한다거나 미륵불이 못에서 출현한다거나 또는 못을 하룻밤에 매운다거나 하는 일들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 인간적 차원과 종교적 차원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선화공주와 지명법사를 만난 서동은 모든 것을 그들이 주장하거나 원하는 바대로 따른다. 금을 몰라본다는 상징으로 표현될 정도의 바보가 되고 또 철저히 순종하는 타율성을 띤다. 이것은 서동이라는 한 인간이 미륵보살과 법사라는 불교적 상징을 만난 이후 변화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적, 정치적 역량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런 것에서 백제불교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다.

서동의 성취만을 본다면 그의 이야기는 영웅설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륵과 법화신앙을 상징하는 선화공주와 지명법사가 등장하고 또 그들이 서동보다 훨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만나는 것도 종교적 신비체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종교적 신비체험의 과정들은 『삼국유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인간의 관념과 의지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체험과 영험의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인간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신령스러운 종교적 구원자의 처분에 따라 타율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

---

생경』에도 아름다운 꽃과 훌륭한 향으로 법사를 공양하고 받들라고 했다. 또 『미륵대성불경』에도 법사를 공경하면 큰 해탈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당시 미륵신앙과 법화신앙이 크게 유행했던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법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나 강조는 역시 법화경에서 볼 수 있다.

동은 선화공주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서동의 인간적 능력이란 것도 神性의 영역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미하고 하찮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공주와 혼인한 이후의 서동이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존재로 설정된 것은 당연하다.

불교는 본래 궁극적으로 자기해탈을 추구하는 자율성의 종교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자율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선종이다. 그러나 인간이 해탈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기에 타율적인 측면 또한 강조되어 왔다. 정토교와 같은 종파는 오로지 염불만으로도 타력에 의해 극락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교의 자율성과 타율성은 불교의 발달과정에서 또는 국가와 시대상황에 따라 달리 강조되어 왔다. 서동설화의 이야기 전개에서도 백제불교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백제불교가 자율성보다는 타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백제에서는 미륵신앙과 법화신앙 그리고 관음신앙이 크게 유행하고 또 신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신앙은 우선 難道易行의 성격을 지닌다. 한마디로 쉬운 방법의 신앙이다. 그것은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성립된 신앙이기도 하다. 미륵신앙은 계율을 지키고 탑을 경배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등의 수행을 통해 도솔천에 상생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미륵불이 하생하는 때에 구원을 받아 이상적인 용화세계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륵신앙의 요체는 미륵불의 출현이다. 중생들은 무엇보다 미륵불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게 된다. 결국 미륵불이 주체이고 그의 제도에 의해 모든 중생들은 용화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륵신앙은 타력적인 성격을 지닌다. 서동설화에서 미륵불이 출현한 것도 이와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타력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화신앙도 마찬가지이다. 법화경은 그 기본 바탕에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한 커다란 두 개의 축으로서 조탑공덕과 경전독송을 제시하고 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惠現의 법화경 독송 영험기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탑을 세우거나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도 능히 성불할 수 있다는 쉬운 방법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과 짝하는 것으로서 타력신앙의 성격이다. 관음신앙도 마찬가지이다. 법화경에 근거한 관음신앙은 오로지 염불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한다. 관음신앙은 타력신앙의 전형이다. 백제에서 유행했던 미륵, 법화, 관음신앙 모두 타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당시 이런 성격의 불교를 신앙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이 곧 백제인들의 종교적 정서와 심성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은 백제의 종교적 상징이나 미술에 보편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이고, 서동설화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본다.

서동설화의 큰 흐름도 백제불교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서동의 어머니는 빈천한 여인이다. 일찍이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홀로 살고 있었다. 그런 여인이 못의 용과 관계를 가져서 서동이 태어난다. 용은 불교적 상징으로서 계시에 해당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서동의 신분은 사생아임을 말한다. 그러한 서동이 왕위에 오르고 마침내 대규모의 미륵사를 창건하여 커다란 불교적 공덕을 쌓기에 이른다. 한마디로 아무 것도 없는 無에서 출발해서 최고의 공덕을 이룬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서동설화에는 분명 당시의 불교적 정서와 사상이 은유적으로 녹아 있다. 서동과 같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왕위에 오르고 대공덕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열반경이다. 백제에서 열반경에 대한 연구와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서동설화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3)</sup>

서동설화는 이렇게 백제불교의 보편적인 성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미륵

33) 鄭環喜는 서동설화 해석에 있어서 필자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서동이 황금을 몰라본 것은 서동 자신이 지니고 있던 佛性을 자각하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는 만민 평등의 『열반경』 사상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 一志社, 1990, 288~291쪽).

불이 하생하는 때에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탑을 세우고 법화경을 외우는 것만으로 누구나 성불할 수 있으며, 또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모두 佛性을 가졌다는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서동설화에 나타난 백제불교의 성격이다.

## VI. 맺음말

미륵사가 위치한 익산은 백제의 수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백제 제 2의 수도에 해당하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륵사와 같은 거대 가람이 들어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미륵사는 한국 석탑의 시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석재를 이용한 새로운 문화실험에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백제문화가 전반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륵사의 창건은 백제의 미륵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미륵사라는 사원공간 전체에서는 탑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미륵사를 조성하고 거기에 大塔을 세운 緣起가 못에서 미륵삼존이 용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은, 법화경에서 탑의 용출과 같은 맥락의 수사적 표현이다. 더욱이 미륵이 법화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이나 미륵사의 거대한 탑의 건립의 사상적 배경이 법화경의 조탑공양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삼국유사』 무왕 조는 완전한 하나의 불교적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동의 신분은 빈천하나, 그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용의 정기를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은 설화 후반부에서 출현하는 미륵삼존과 수미쌍관을 이루는 미륵불과 관련된 용이다. 서동이 용의 아들이라는 전제는, 결국 미륵사라는 거대한 가람을 지어 불법을 흥포하는 대역사의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암시가 깔려 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는 彌勒仙花와 연관을 가지며, 미륵인 불교신앙과 선화인 토착신앙을 아울러 갖춘 무불 융합신앙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백제가 미륵신앙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런 설화가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선화공주가 진평왕 부부의 딸로 설정된 것도 그들이 석가의 부모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을 정도의 열렬한 불교적 신앙을 서동설화에 반영한 것이다. 서동설화의 본질은 불교적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 백제와 신라 사이의 원수관계는 별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현실적 차원은 더 높은 차원의 불교적 상징으로 대체·승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선화공주를 만나기 위해 서동이 머리를 깎은 것은 求道의 불교적 상징이다. 서동은 선화공주와 혼인하기 이전까지 능력이 뛰어난 영웅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미륵선화를 상징하는 선화공주를 만난 다음부터는 거의 바보형의 인간으로 역할이 전락한다. 이런 설화구조는 서동이 불보살에 귀의하고, 그 불보살의 인도를 받아 열렬한 신앙으로 마침내 큰 공덕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知命法師는 법화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며, 그가 상징하는 비는, 법화경에서 표현된 불보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서동의 성취 모두가 자신의 역량이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면, 서동의 이야기는 영웅설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륵과 법화신앙을 상징하는 선화공주와 지명법사가 등장하고 또 그들이 서동보다 훨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만나는 것도 종교적 신비체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신령스러운 종교적 구원자의 처분에 따라 타율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백제에서는 미륵신앙과 법화신앙 그리고 관음신앙이 크게 유행하고 또 신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신앙들은 타력적인 성격을 강하게 지닌다. 당시 이런 성격의 불교를 신앙하였다는 사실은 그것이 곧 백제인들의 종교적 정서와 심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은 백제의 종교적 상징이나 미술에 보편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것이고, 서동설화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본다.

서동설화의 큰 흐름도 백제불교의 성격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빈천한 서동이 왕위에 오르고 마침내 대규모의 미륵사를 창건하여 커다란 불교적 공덕을 쌓기에 이른다. 그것은 바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사상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열반경이다. 백제에서 열반경에 대한 연구와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서동설화에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동설화는 이렇게 백제불교의 보편적인 성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미륵불이 하생하는 때에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고, 탑을 세우고 법화경을 외우는 것만으로 누구나 성불할 수 있으며, 또 관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중생이 모두 佛性을 가졌다는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서동설화에 나타난 백제불교의 성격이다.

주제어 : 미륵사(Mireuksa), 서동설화(the Soedong fable), 법화신앙(The faith in the *Lotus Sutra*), 백제불교(Baekje Buddhism)

투고일(05. 06. 15), 심사시작일(05. 08. 23), 심사종료일(05. 10. 07)

(Abstract)

## Mireuksa and the Fable of Seodong

Lee, Ne-Ogg

King Mu (r. 600~641), the 30th king of Baekje, established Mireuksa Temple. The temple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for the origin of Korean stone pagodas.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Mireuksa temple and the Maitreya cult.

However, throughout the temple place of Mireuksa the stone pagoda was especially emphasized. This is also dat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Mireuksa temple when a Buddha triad came out of a pond. It can be also connected to the idea of making a pagoda for the Buddha from the Lotus Sutra.

The fable of Seodong was composed with a number of Buddhist symbols. Seodong was very poor from a low social status, but he was born with the energy of a dragon. In this premise, there is a clue that Seodong was granted a great mission that he should make a great Buddhist temple named Mireuksa and transmit the precept of the Buddha. Seodong married Princess Seonhwa, a daughter of King Jinpyeong (r. 579~632) the 26th King of Silla. This fact reflects an ardent Buddhist belief in the Seodong fable. Moreover, this fable can be created because Baekje was the center of the Maitreya cult in those days. At that time,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Baekje and Silla was represented by replacing and sublimating a high dimensional Buddhist symbol.

Cutting his hair to meet Princess Seonhwa is a Buddhist symbol of seeking for a doctrine. Seodong was a hero who had a superior ability before he married Princess Seonhwa. However, he was nearly relegated to the role of a stupid man after he met Princess Seonhwa who symbolized Mireuk

Seonhwa. Meeting Princess Seonhwa can be the symbol of a mystic experience where Seodong was converted as a bodhisattva.

The success of Seodong was accomplished by the assistance of Princess Seonhwa and Master Jimyeong who symbolized Maitreya and the Lotus Sutra. So a human autonomy was reduced and a heteronomy was expanded by a handling of the religious messiah like Buddha. Baekje Buddhism kept a character that depends on the external power. This feature was then universally expressed to the religious symbol and art of Baekje.

In the Seodong fable, the poverty and lowliness Seodong took the throne and finally founded a large scale Buddhist temple named Mireuksa and accumulated virtuous deeds. This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ideal that anyone can become a Buddha. The Seodong fable has a connection with an universal character of Baekje Buddhism. Baekje Buddhism started from the idea that that all living things have Buddha nature. This presents a prospect that anyone can attain buddhahood. All these characterize Baekje Buddhism, which are represented in the Seodong fable.